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 '녹색마을' 된다

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추진 박차... 김승수 시장, 사업 현장 방문 추진상황·계획 점검

전주 제1국가산업단지 인근 전주시 팔복동 신복마을이 활력 넘치는 녹색 마을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올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공장 밀집구역인 팔복동 신복마을 일원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녹색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복마을 일원에 'ICT 마을숲'과 '스마트 그린 에너지 마을'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ICT 마을숲'은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 도로 구간에 빗물 활용 자동살수 시스템과 빗물정원(식생수로)을 구축해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물순환 청정길과 녹색 쉼터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신복마을 일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쉼터(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공공건물(팔복동 주민센터)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가로등 교체 등을 추진해 스마트 그린에너지 마을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녹색마을로 탈바꿈 중인 팔복동 신복마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배후 거주지역인 팔복동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전주의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팔복동 산업단지를 문화와 일자리 등 젊음으로 꿈틀거리는 전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녹색마을로 탈바꿈 중인 팔복동 신복마을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청소년 불안·우울 해소 집중 지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클리닉 운영 기관 선정

평소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올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모한 '불안·우울 집중 심리클리닉' 시범 운영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부터 고위기 청소년 상담매뉴얼 교육과 컨설팅, 수퍼비전 등을 지원받아 전주지역 고위기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상담개입과 효과성 검증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 청소년 불안·우울 관련 고위기 상담전문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전주시 조례 제3682호에 근거해 청소년 전문상담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원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속 가능한 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센터 내 위기관리를 조직해 위기 사례를 전담 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불안·우울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공모에는 전국 23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전주·남원을 포함한 17곳이 최종 선정됐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불안·우울 집중 클리닉 센터로 선정돼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청소년 불안·우울의 심리적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마음 근육을 키워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 각 1권 책 선정... 16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책의 도시 전주'를 선포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2021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전주시는 이날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022 전주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전주 올해의 책'은 전주시가 해마다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 각 1권의 책을 선정하고,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진흥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민 독서 운동이다.

시는 그간 독서전문가 16명으로 구

성된 '전주 올해의 책' 추천위원으로부터 80여권의 도서를 추천받아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후보도서 선정위원 회의를 거쳐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 후보도서 총 9권(부문별 3권)을 선정했다.

어린이 도서는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김선남 글·그림, 그림책공작소) △별별나무(김정성 글/김유대 그림, 이야기꽃) △햇빛전정(이순미 글/이영환 그림, 보랏빛소어린이)이 후보에 올랐다.

청소년 도서는 △계절 산문(박준 저, 달) △보통의 노을(이희영 저, 자음과

모음) △순례 주택(유은실 저, 비룡소)이, 성인 도서는 △달뜰개(최기우 저, 평민사) △별것 아닌 선(이소영 저, 어크로스) △춤과 더운 우리 집(공선옥 저, 한겨레출판)이 선택을 받았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11개관 및 책가동도서관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시는 최다 득표를 받은 부문별 1권씩, 총 3권을 '2022 전주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해 오는 18일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jbook.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하여 독서 릴레이, 100일 필사, 독후감 공모전, 낭독 공연, 가족 독서 끝판벨, 저자 초청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서 활용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단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전주 올해의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의 책 선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여행과 책임논도시팀(063-230-1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8월까지 '2022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53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4월 4일부

터 6월 17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 시내 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57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 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면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자금 용자 신청 접수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자활복지자금 용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자활복지자금은 총 2억1000만원 규모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억 5000만원과 자조자립자금 6000만원으로 편성돼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원될 예정이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주택 개·보수비, 장례 보조비, 부채상환금 등 생활안정을 위해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500만 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상환(무이자) 조건이다.

저소득층의 창업비와 재해복구비, 재취업기금 등 지원되는 자조자립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자율 연 2%)이다.

올 상반기 자활복지자금은 대부분 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갖추고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진료비내역서, 사업계획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